

12과 1 팀 단기선교 사역 보고서

1. 기 간 : 2015년 8월 5일(수) ~ 2015년 8월 13일(목) (8박9일)
2. 국가/사역지역 : 미얀마 스피다지영
3. 교구/교회학교 : 1교 교구 / 부
4. 팀 장 : 김 종민 (서명) 서기 : 김 영준 (서명)
5. 보고일자 : 2015년 8월 22일
6. 보고내용 :

1. 사역에 대한 총평	교구가 지원하여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회에 선교방식에 따라 미얀마 스피다지영에 4개 교회를 방문하여 교회 주변전도와 현지인 사역자 와 함께 사역하여 방문한 교회마다 교회 건물내에서 어른은포함한 어린이와 함께 정제는 40~ 많게는 60여명나 함께 복음을전파하고 찬양및 율동사역도하면서 이곳에 복음을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주님으로 영접한 영혼들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할수 있게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척교회는 어떻게든 4개 교회와 지속적으로 좋은 복음거지가 될것 같다.
2. 추천할 내용	방문한교회 주소및 사역자 연락처 밝히심.
3. 개선할 내용	차용적전도보다 현지인 협력하여 함께 사역하고 영내를 믿는것이 훨씬 효험직연것 같다
4. 선교위원회앞 건의사항	지역지식정보와 계획을 결정할수있는 분이 단기선교에 동참원함 <예. 현지로복사.교주장. 아내님 팀장에게 전방은주요인함입니다> 우리교회가 지원하는 선교방식과 실천방향을알려주고 현지인으로부터 할수있는

7. 현지 및 기사 정보 현지어로 된 설문지를 가져가서 현지인으로부터 작성게하며 가져온 설문을 정리함

• 정치/경제		• 종교상황 • 치안상황	
• 교회에서 배운 선교언어 현지인의 이해 정도		회교직 장로아들등 미전향 부흥은 강도저를 보셔주면 잘이해가 될수있고 교재를이용한게 잘알려들음.	
* 기사 정보		성명	차종
		U Nyan Win	도요타 8인승
1일 비용	\$ 75. 6250짜	☎ [Redacted]	추천 여부
총 비 용	\$ 600 50000.2짜		
기사 평가			
개우느직이며 상술의림.		적극 추천 (✓) 보통 추천 () 적극 반대 () 한국어 가능 () 영어 가능 (✓)	

8. 추천하고 싶은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

도시 및 호텔명	요금(USD)		시설내역(유/무)		☎ 또는 이메일	
HOTEL 향촌 SHWE THANLYIN	2인1실	35	온 수	○	☎	056-23500
	3인1실	45	냉 난 방	○	이메일	09-420188785
	기타		아침식사	○		
숙 소 평 가						
YAE WADDY MOTEL	2인1실	35	온 수	○	☎	+951642740. 745767
	3인1실	50	냉 난 방	○	이메일	Yaewaddy motel @gmail.com
	기타		아침식사	○		
숙 소 평 가		천정하고 과열찬식도중, 숙소에서 칼로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숙박시설도 있음. 그중에서 향촌호텔을 방문하였습니다.

9. 사역 경로

사역지	숙소에서 이동거리(KM)	이 동 소요시간	사역지 향후 전망 및 현지인 반응	사 역 지 교회유무	전도방법
UK PHO MISSION CENTER		30 분	예수교인 10여명 있는 센터로 (양성) 군 관련 성경공부하는 학생 지인까지도 참여		추천과 방문
Shwepyithar (나) 교회		1 시간	주요 마을 센터에서 30분 가장 활동하기 좋은 교회로 여겨짐		
Shwepyithar Myanmar mission		"	북지 교회 방문 기록 참조.		
North Okalar		"	수확하지 못함. 그리스도인 몇몇 있음	무	추천과 방문
Nowardt village Than Din village		"	그리스도인 몇몇 있었음 대체로 복음 잘 받아들임	무	"
Beren Community church		2	장년 18명, 청년 13명, 어린이 13명, 부흥회 중		
			45세 이상 목자님 계심 추후 활동 기대할 것임		

10. 향후 인터넷 선교 가능한 피 접촉자 정보

성명	E-Mail 주소	영어능력(상/중/하)

11. 소감문 및 회계자료 (첨부)



2015년 거안타 성화

12월 8/5
슈피타지
(SHWE PYI THAR TOWNSHIP)

HOTE

② My name is Joly <사모> 루은
 Nay Nyunt (복사) 네는
 No 125C 10. Satana(st) 17. Shwe pyithar
 Township: Vangon Javithan
 [Redacted]

이틀 10 여명 함께 주일
 이틀 10 여명 함께
 장려하기 할만한 교회라
 사모자를 여가장. 20 여명 되는 교회로 주일이
 하 역심으로 사모 사모자를 10 여명 되는 교회라

Myanmar Center (빛과 생명의)
 ③ RPR Saga Win Myint (복사) 네는
 영은.

④ Shwe pyithar
 Pyi tau than Rock
 51136 phon .09-7955940
 (장려할만한 교회)
 좋은 목사님이
 드신 목사님
 목사님

Myanmar mission (복사) 네는
 (1/2) (복사) 네는

⑤ 081 36
 91 226 141: 109-7955940
 57625 2261. 505

주일 미션 센터 (복사) 네는
 소개다 한 내로 방문하여
 목사님
 교회로 주일이
 자중.
 주일 미션 센터 (복사) 네는
 높은 지해에 있어 생활하기는
 높지해 늘게 모라는데
 형제들이 있어 주일 미
 학교도 있고 하루 전사
 파송 및 경제적인
 있는 좋은 정아가 있어
 간.

교회 이름을 리본다 생하리라고 하였음
 20 여명 정도 되는 방문객으로 완전한 교회로
 개교된 교회라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음.

Rev. Moe ... (ဆရာမိုး) = 65 = ၆၅ နှစ်အသက် < ဗုဒ္ဓဘာသာဝင် ဖြစ်ပြီး နာမည် >
 Miss. Sung ... (ဆရာမဆွန်) = ၅၀ = 50
 Miss. Ngai Te (မ ဂေါ်ထီ) = 28 = ၂၈

ph: [Redacted]

မိုးကလေး (မိုးကလေး) မိုးကလေး
 မိုးကလေး (မိုးကလေး) မိုးကလေး
 မိုးကလေး (မိုးကလေး) မိုးကလေး

BANG Si Gone အသက် ၁၇ နှစ်
 နာမည် ၃၈၆၇
 မိုးကလေး (မိုးကလေး) မိုးကလေး
 မိုးကလေး (မိုးကလေး) မိုးကလေး
 မိုးကလေး (မိုးကလေး) မိုးကလေး

ဗုဒ္ဓဘာသာဝင် ဖြစ်ပြီး နာမည် >
 ဗုဒ္ဓဘာသာဝင် ဖြစ်ပြီး နာမည် >

မိုးကလေး
 မိုးကလေး နာမည်
 ဗုဒ္ဓဘာသာဝင် ဖြစ်ပြီး နာမည် >
 ဗုဒ္ဓဘာသာဝင် ဖြစ်ပြီး နာမည် >

မိုးကလေး
 မိုးကလေး နာမည်
 ဗုဒ္ဓဘာသာဝင် ဖြစ်ပြီး နာမည် >
 ဗုဒ္ဓဘာသာဝင် ဖြစ်ပြီး နာမည် >

မိုးကလေး
 မိုးကလေး နာမည်
 ဗုဒ္ဓဘာသာဝင် ဖြစ်ပြီး နာမည် >
 ဗုဒ္ဓဘာသာဝင် ဖြစ်ပြီး နာမည် >

မိုးကလေး. UKPHO MISSION CENTER မှာ နာမည် CIN ZAW MOE
 (ဗုဒ္ဓဘာသာဝင်) ကို တွေ့ရှိရပြီး ဗုဒ္ဓဘာသာဝင် ဖြစ်ပြီး နာမည် >
 ဗုဒ္ဓဘာသာဝင် ဖြစ်ပြီး နာမည် >



မြန်မာ့ စာအုပ်

Mr. Win

U Nyan Win

Ph.

Em

ချစ်
မောင်
အောင်

မိမိကလေးက
ပျော်နေကြပါ

မြန်မာ့ စာအုပ်

MYANMAR BISTON

မြန်မာ့ စာအုပ်

မြန်မာ့ စာအုပ်

မြန်မာ့ စာအုပ်

မြန်မာ့ စာအုပ်? မြန်မာ့ စာအုပ် မြန်မာ့ စာအုပ်
မြန်မာ့ စာအုပ် မြန်မာ့ စာအုပ်
မြန်မာ့ စာအုပ် မြန်မာ့ စာအုပ်
မြန်မာ့ စာအုပ် မြန်မာ့ စာအုပ်
မြန်မာ့ စာအုပ် မြန်မာ့ စာအုပ်
မြန်မာ့ စာအုပ် မြန်မာ့ စာအုပ်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인천 공항에서 미얀마 양곤으로 비행기는 출발하면서 긴장과 걱정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항상 나를 의지하는 근심함으로 사역지에 도착하면서 먹을 것 숙소 걱정으로만 가득 차 있는 모습에서 화개할 수밖에 없는 저에게 공홀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사역지에서 현지 목회자를 만나고 주민들과 함께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초롱초롱한 현지 아이들과 함께 저희들은 전도자로서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허물과 부족한 것뿐이지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언어, 찬양 등)

현지 사역자들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뜨거운 찬양으로 함께 할 때 아이들과 현지인들의 귀 기울이는 모습은 초대 교회에서 아무 것도 없이 입술만으로 증거 할 때 그들은 눈물과 영접 기도를 통해서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게 귀 기울이고 있었고 부족한 언어로 증거 해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신다. 우리의 계획 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현지 사역자를 통해서 성경 공부와 가르침의 역사하심 속에서 포도송이를 맺고 계신다. 현지 사역자들을 가뭄에 콩 나듯이 몇 개월에 한번 씩 양육할 때가 많다고 한다. 속히 미얀마 땅에 필요로 하는 사역자들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팀원들과 함께 간구하는 심정과 속히 사역자를 보내 달라고 기도합니다. 순수한 현지인 중에는 어린아이들은 영접기도로 영광들리지만 어른들은 불교라며 이방인이라고 거부하면서 발 걸음을 재촉하면서 빨리 피하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오늘 밤 어루만져 주실 것이다. 창피하다고 전도지만 받아서 빨리 도망가는 그들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령님께서 이 저녁 “불길 같은 생령이 간구하는 저들에게” 은혜가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선교를 통해서 부족한 저희 팀을 사용하여 스피다 지역을 통해서 생령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교는 진행형으로 중단 없는 선교가 계속되어야 하며, 먼저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말씀 속에서 변화 받고 하나 되어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선교 소감문

12교구 1팀 이교숙 권사

석달 간의 선교 훈련을 마치고 선교 출발 하기를 며칠 앞두고 사이클론의 습격으로 미얀마 곳곳에 홍수가 나 많은 집과 가축들이 물에 잠기고 마을 전체가 호수로 변한 외신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우리 팀은 미얀마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번 선교는 교구에서 선교 현지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의 정탐과 축호 전도로 계획을 세우고 떠나게 되었다.

미얀마 곳곳에서는 이번 홍수로 인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온 나라가 대대적인 모금 활동을 하고 있었다. 양곤에서 1시간 떨어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 슈비타 지역으로 향하였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된다’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 분이 예수그리스도이심을 알라고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이 생각났다.(사33:5,6)

현지 교회의 청년의 안내를 따라 교회를 방문하였다.

작지만 뜨거운 교회, 피아노 하나 없고 번듯한 성경책 하나 없지만, 대나무로 엮은 작은 교회당 안에는 성도들로 가득 모여 있었다.

갑자기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던 교회 사역이 시작 되었다. 부라 부라 찬양과 율동, 현지어로 된 전도 내용을 전하고 또 현지인이 미리 만들어 간 삽화와 전도 내용을 전하면서 복음 사역이 시작 되었다. 성도들 모두 아멘 아멘하는 소리로 성전 가득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다. 우리가 준비해간 작은 율동과 찬양이었으나 그들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듯이 어린이들과 어른 모두들 뜨거운 열기와 함성으로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하고 모두들 어울려서 율동을 하며 예수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성령이 기뻐 하시는 교회 사역을 하였다.

주일 예배를 현지인 2교회에 가서 드리기로 하고 아침 7시 본 예배를 드리고 현지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예배 전 찬양과 율동, 예배 중 학생들로 구성된 성가대의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아름답고 우렁찬 찬양 모습, 파자마 듀엣 형제의 특송, 기타 반주에 맞추어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학생의 찬양 비록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와 달라도 신령과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너무나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도 감사하지 못하였던 나의 미지근한 태도에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고 팀원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흘러 내렸다. 좁은 가정 교회당안에 어른과 아이들 80여명의 땀이 맺힌 2시간 정도의 찬양과 예배 시간에도 단정하게 기뻐하며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땅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라는 찬양이 떠올랐다.

축호 전도와 길거리 사역을 통하여 아름다운 미소로 손님들을 반갑게 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대로 아멘하고 영접기도 까지 따라하는 모습을 통하여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일꾼을 청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이 땅에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일어나 주의 일꾼으로 자라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 훈련을 마치고 미얀마로 출발을 하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둔한 입술로 증거 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담대함을 주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번 선교를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확신하며,
힘차게 복음을 전하였다.

미얀마 스피다 지역에서 우리 팀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며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다.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특히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어린 아이들의 맑은 미소와 찬양, 율동을 잘 따라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함을 느꼈다.

우리 팀은 2조로 나뉘어 가정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불교 신자도 만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외에 구원 받을 다른 길은 없음을
반복해서 전하였다.

처음으로 방문한 가정은 하나님을 이미 영접한 가정이었다.
하나님을 영접하기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을 보며
깊은 감사와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더욱 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역을
하였다.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은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보배들입
니다.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미얀마 스피다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일꾼이 양성되는 곳이 되게
하시고 미얀마 땅에 복음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진정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미얀마 땅에 주님의 뜻
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박 용 순 권사

미얀마 선교를 다변화

12교구 드 승혜 집사

이런 미얀마 선교를 통해 주님께서는 내게 많은 감동을 베푸시는
것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 걷는 영이 참 기쁘다. 이러한 기쁨이 사역
이 온 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의 응답임을 느끼며 사역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나 역시 얼마나 기도로 사역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전도하는 시간 제회들의 마음을 만져서 모든 시간 시간들이 나가하는
것에 아닌 주님께서 주신 행하시고 이따를 위해 지나간 모든 시간의 지
금 선교하는 때를 미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시간이었음을 알게 하셨다
나는 무슬림이다, 나는 불교도이다 하는 자들에게도 또 듣기 싫어하는 사람
에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의 주님이시고 당신을 얼마나 사랑
하든 주께까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을 전
하였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사
랑하신 예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다시 고백 하건데 선교는
나로서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고 정말 주님께 하셨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대비하여 각 시청각 교재를 보며 주
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려고 전했다
여행지 여정에는 시설은 볼 것 없지만 교회가 있어 많은 어린 생명들을
천국으로 인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감사했다
주님 제들이 자라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되도록 지켜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오며 간절히 간구하게 된다 나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2015. 8. 13 이복마 선교를 마치며

미얀마 선교 현장에서

12교구 김 영 춘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미얀마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미얀마에 도착하여 보니 곳곳에서 홍수피해를 당한 동포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거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홍수의 형제와 동포를 돕기 위해 집합로 헌신적으로 모금 운동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해려 생명의신 예수 그리스도
를 전하러 미얀마 수도에 지역 복음을 전하러 7명의 대령이 생명의
인도 하심을 따라 수도에 지역 복음을 전했다

금년 부리는 예년과 달리 1교구 1국가 1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새우고 주님앞으로 나아오는 자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깨우는데
중점을 두고 선교하는 것이다. 수도에 지역에 확실한 기점을 확보하는데 주력
하기로 했다. 미리 준비한 집합로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쉐인 모(CIN ZAW
MOE)라는 25세된 청년의 안내로 먼저 봉사하고 있는 (UKPHO MISSION
CENTER)에 3곳의 교회를 방문하고 또 교회 주변 성도 및 교회에서 여러
지역으로 판승선도, 찬양과 율동, 교제를 통하여 목적인나 복음을 전할 뿐
만 아니라 교회를 새우기 위한 집합로 정립하게 되었다. 수도에 지역은 우리들
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생활 수준이 높았으며 그러한 가운데도 예배처
소 있었고 미얀마에 가면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학교가 별로 없었
고 오히려 생계조차 못한 교회가 미얀마에 곳곳에 있고 믿음의 형제들 중
호전도를 하려는 젊은 청년들이 있었다.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랐으며 여러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주일날 자체적으로 일찍이 예배를 드리고 2곳의 교회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준비해주

했다.

네트(Nay Ngant) 목사님과(Jolly) 두분자도 가 사무하는 네교회에는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40분전 도착하였는데 여러 어르신들과 50여
명여 어르신들이 모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 예배시간 30분
전에 도착. 목사님의 뉘는 거라 반주에 맞추어 찬양을 시작하셨다. 찬송가가 없애
대형절지에 찬송가 가사를 적은 것을 벽에 붙이고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어쩌면 하나같이 찬양에 몰입하여 열심하는지 감탄이 절로난다. 아!
이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찬송하는 찬양이구나. 모두가 열심이지만 그중 두사람이
하나 열심히 하는지 눈에 띄수가 있었습니다. 두손을 붙든 채로 하늘을 바라보
면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때로 주손으로 가슴을 치며 찬송하는 모습이야 말
로 감동 감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뒤 우익이네까 다가가 이름 묻고
예포를 했습니다 7살된 린나씨와 10살된 린 드와 네라는 여자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자라 가듯 교회에 계실 때는 원수인 불꽃을 학습하며 기도하기로 했습
니다 30분간의 예배전 찬양에 이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의 하나라 찬양과 말씀 기도가 조금도 부실함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드
려졌다. 말씀 선포전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 5명이 역시 뉘는 거라 반주로
찬양을 하는데 어쨌 그렇게 열정적이지... 이런 한 남학생의 독창, 그 영광을
을 다해 부르는 찬송 그리고. 찬송, 찬송, 기도 예배내내 찬송이 끊이지 않
는다 정말 처음으로 예배의 감격에 빠져 예배였다. 성령도 찬송가를 가지고
있지 못해도 온 영광 찬양에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머무바답네네드 자세
하나 흐드러지지 않고 한 말씀 한 말씀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감
동감도 없이 목사님께서 입은 것도 아닌 평상복에 전혀 락자 하나 놓고 무릎 꿇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말로 감동 그 이상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배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예배가 무엇인지 성경과 찬양으로 이끌어 한 것이지
우리로 보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아! 중학교회가 영예부로 소망무
이 되게 까지 이 예배의 감격이 실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
뻐하시겠는가?

뜨거운 감동과 감격을 위로하며 우리시에 시작되는 또 다른 채소로
 옮겨 예배를 드렸는데 이곳도 아름답게 뜨거운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가드려졌다. 예배중 한 과부가 주머니가 지름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환경 속
 에서 탈출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됨이 은혜로
 모든 관계가 해결되리라 하고 기도응답 받은 것을 존중하셨는 말씀 그대로 열정적
 으로 감사와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는지 아멘 할렐루야가 절로 되쳐진다. 이어서
 말씀 선포와 성찬식이 있었어 이렇게 성교제와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
 으니 지금도 그때의 감동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성교 일정 내내 이 감
 동과 감동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한데 주크리스찬과 노방전도로 복음
 전할 수 있었다. 때로는 환자를 만나 기도하고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 기쁨을 나
 누고 때로는 승복을 받은 승복에게, 어찌로 노변에 이르러까지 다니는 많은 분
 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은은 채로 있고 믿는 자도 (말씀 듣고 영감받은 자)가
 있었지만 우리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교제 내내 참된 보람을 지니고 있는 감사와 감격 성령충만한 가운데 성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껏 맛보지 못한 큰 기쁨과 평화를 이 곳에서 전도한 영
 혼들이 예배처소가 있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뻐합니다
 그동안 여러곳에 성교를 다녀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가 없애 그들의 미래가 불투
 명하였는데 이곳은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교회가 있어, 바깥 세계가 될 수 있
 고 교제할 수 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너무 감사하
 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여러 사역에 뛰어들어 있는 이들을 기쁘게 보았지만 기
 켈 때도 이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15. 8. 13

미얀마 기피마 성교회에서

집사 김종민 총무 이성홍 회계 이교우 위로 도승애

집사 김영춘 박용준 이성호

선교현장에서

2015. 08. 16.

12교구 이성숙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처럼 살아 온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두웠던 모습과 원치 않는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번 선교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 그리고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선 나를 미안마 선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밤이면 다리가 붓고 통증에 시달리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낮에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 그리고 온몸과 마음을 다 드려 절규하듯 찬송하던 어린영혼들을 떠올리면 언제 그랬냐는듯 아픔이 사라지고,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강물처럼 나의 마음에 밀려와 벅찬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특히 축호전도를 하던 넷째날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로 잠시 비를 피해 들어간 집에 어린 아이를 포함하며 13명이 있었습니다. 마침 비도 피할겸 양해를 구하며 복음을 전해도 되는지 그 가족에게 물어봤고, 흔쾌히 수락하며 후한 대접을 해주었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까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비도 그치고 기쁨마음으로 그 집을 나서는데 승복입은 18세 정도 된 소녀를 만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가 전지도를 주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녀의 얼굴 빛이 환해지며 전도지를 읽고 또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접기도를 하였습니다. 불교국에서 태어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문에 입문한 그녀가 생명의 말씀을 대하자 그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은혜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저는 그녀를 붙잡고 우리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설령 불교도이지만, 그녀의 가슴속에 심어진 주님의 말씀이 훗날 반드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밀려오는 큰 기쁨과 평화를 통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잡고 있던 어둠던 마음이 사라지고, 다리의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이곳에는 현지인이 세운 예배처소가 곳곳에 있기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영혼들이 모일 장소가 마련되어있어서 더욱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역사하심이었고, 제겐 감사함이 되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총 평가를 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슬픔과 애痛的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팀원 모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어주시고 제 평생에 처음으로 강 같은 평화가 넘치게 하시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신 총현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미안마 슈퍼다지역에 큰 기쁨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뢴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12교구 미얀마 선교1팀

이성숙 집사